교권 상실은 교육의 포기

—오늘의 대학을 생각하며

사설

최근에와서 우리는 敎權이 확립되어야 한다는 말을 자주 듣는다. 대학의 교육과 함께 생활하는 교수와 학생들로부터는 물론 정부당국자나 학부모를 포함한 일반 사회인으로부터의 세평도 그렇다.

역사인식을 포함한 역사철학에 관심이 높아졌을때 역사적현실이 매우 어려웠던 역사속의과거를 되돌아보며 반성해 보기도 한다.

그러면 敎權이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가? 아주 간단히 말하면「교육자가 명분을 가지고 학생을 가르치고 지도하는 권위」이다. 조금 더 부연한다면「교육이 정치적인 권력이나 기타 외부의 압력없이 독립하여 신념을 갖고 자주적으로 연구하고 지도하는 환경및 분위기와 그의 조성을 위한 노력」이 될것이다. 이는 다른 말로 대학의 自律性인 동시에 권위이다.

이러한 권위는 정치적인 권위처럼 지배적이 아니고, 자율적인 학문연구와 교육을 통하여 자연스럽게 형성되어진다. 스스로 권위를 과시하지 않을뿐 아니라 학생들에게도 위압이 아닌 학문의 능력과 윤리를 통하여 교권은 친근하게 접근되어져야 한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이 자주 말하는 교권에 대한 인식에는 각자가 처한 입장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 같다. 정부당국은 교권의 확립을 지지하고, 학부모및 사회는 나름대로 교권의 확립을 강력히 요구한다. 또 매일매일의 생활이 교권과 관련되고있는 우리 대학인 (교수와 학생) 역시 교권의 확립을 힘써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교권의 확립이야말로 오늘날 대학이 직면하고있는 어려움을 극복하는 가장 중요한 과제로서 모두의 의견이 일치되고 있음을 느끼게 된다. 다만 대학의 교권을 요구하며 주장하고 희망하는데는 일치하면서도 그에 대한 처방이나 시약에는 서로가 일치점을 찾지못함이 안타까울 뿐이다.

우선 대학의 행정에 관여하는 정부당국자는 대학에 대해 끊임없이 강력한 명령과 지시를 통하여서 교권을 확립시킬수 있다는 단순하고 편협한 태도를 버려야 할것이다. 대학과 교권이 이야말로 자율을 먹고 자라는 나무임을 인식해야 한다. 이 경우 그렇다고 대학이 치외법권의 영역이라거나, 독선을 옹호하는 것은아니다.

다음은 사회로부터의 기대와 요구이다. 대학은 학생의연령이나 학문연구란 특수성격때문에 역사상 언제나 시대의 선도자였음을 인식해야한다.

따라서 급변했고 급변하고 있는 우리 사회의 본질을 이해해야지「지도편달」이나 「대학에 맡긴다」는 것 같은 지난날의 교육관및 교권관에 얽매이어서는 안될 것이다. 학생은 자율속에서 학문하며 교수는 그 학문연구와 생활의 조산원적 역할자임을 인식해야 한다.

다음으로 우리 대학인의 자세와 태도를 생각해보자. 교수는 현실과 사회 그리고 특히 학생들의 변화하는 모습과 욕구를 깊이 이해하고 학문연구에 최선을 다함으로서만 대학의 저력인 유연한 교권은 성립되는것이다.

학문연구이외의 학생지도는필요한 범위를 이탈하지않는 분위기와 태도가 가장 바람직하다.

끝으로 학생들은 대학이 진리탐구의 영역이며 교수가 학문연구이외의 영역에서는 무력하다는 것을 인식해주기를 바란다. 학문은 실천보다는 이론에 가깝다. 즉 축산학교수가 소를 가장 잘 기르는것도 바로 이러한 학문과 대학의 성격을 상징적으로 잘말해주는 것이다.

유연하며 윤리적이고 권력을 수반하지 않으면서 연구와 학문지도를 통해서만 형성되는 우리의 교권은 자칫 보잘것없이 보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 교권의 상실이야말로 교수 내지 대학인의 좀은 영역에서의 손실을 크게 넘어서, 국가의 百年大計인 교육을 그르치게 한다는것을 깊이 인식하지 않으면 안된다. 따라서 국가와 사회및 우리 대학인 모두는 대학을 살리기위한 교권확립에 우리의 지혜와 용기를 다하여 인내성 있는 노력을 계속해야 할 것이다.

지속과 변화의 진통을 겪는 소련

——고르바쵸프 정권의 정책방향과 진로분석

신광균 〈대학원 박사 3기·정치학〉

작년 3월 미하일 고르바쵸프 서기장 집권이래 처음으로 개최된 제27차 소련공산당대회가 2월25일 부터 3월6일간 모스크바에서 열렸다.

이번 대회에서 소련의 대내외정책노선을 제시한 고르바쵸프의 정치보고승인을 보면▲새로운 당강령개정·채택▲제12차 5개년경제계획(86~90)과 2000년까지의 경제·사회발전계획 확정▲당중앙위원307명및 당중앙후보위원 170명선출▲정치국원(1명)정치국후보위원(2명)당서기(5명)를 새로 선출하고 정치국후보위원(2명)및 당서기(2명) 를 해임하였다.

소련공산당은 소련사회에 있어서 권력의 궁극적원천이며 우월적지위를 점하여「전 소련 인민을 지도하고 공산주의 승리를 위한 투쟁의 전위」이며「노동자조직의 중핵」으로 규정되어 있다. 헌법적으로는 소련최고회의가 국가권력의 최고통치기관으로 명시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공산당이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어 입법·사법·행정은 당통제하에 움직임은 물론, 당은 각 기관과 인적으로 결부되어 내부로부터 이를 지도한다.

따라서 소련의 정치체제에 대한 일체의 분석이 당에 대한 분석에서 시작됨으로 당대회는 늘 주목의 대상이 되어 왔다.

이번에 개최된 당대회는 당규약상 최고결정기관으로 당의 결정을 수행한다는 의미외에도 브레즈네프 이후 병약단명했던 전임자들과는 달리 비교적 젊고 전문가적 성격이 강한 고르바쵸프 서기장이 등장한 이래 첫 대회로서 향후 소련지도층의 정책방향과 진로를 예측해 볼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을 끌어왔다.

금번 당대회의 특징은 그간의 소련경제 쇠퇴원인을 브레즈네프에전가, 탈브레즈네프화를 선언하면서 소련체제 전반에 걸친 전면적인 개혁을 통한 현실주의노선을 강조했으며 대폭적인 인사개편을 단행, 고르바쵸프의 장기집권기반을 구축함과 동시에 당의 체질을 이데올로기 위주에서「테크노크라트·시스템」으로 전환시키려는 의도를 명확히 한 것이다.

고르바쵸프서기장은 약5시간에걸친 정치보고연설을 통해 대내외문제전반에 대한 정책노선을 표명했는바 우선 70년대와 80년도초에 걸친 무기력한 관리방법및 관료주의 팽배등으로 소련의 발전에 적지않은 피해를 가져왔다고 경제체제의 경직성에 언급하면서 수년동안 당과 국가기관은 시대적 요청에 신속하게 적응하지 못했다고시인하면서 브레즈네프시대를 신랄하게 비판했다. 고르바쵸프의 이같은 발언은소련인들의 의식적개혁없이는 소련이 현실적으로 직면하고 있는 난제들을 해결할수 없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다.

특히 고르바쵸프서기장은 이번 보고연설에서 더이상 부분적인 개혁에 머물러 있을수 없으며 급진적인 개혁이 필요하지만 계획경제의 기본원칙은 유지되어야 하며 자유시장과 사유재산의 개념은 배제되어야 한다고 주장, 개혁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사회주의경제원칙에서의이탈은있을수없음을분명히하고 있다. 이는작년3월소련공산당중앙위에서 신서기장으로 선출됐을 때 취임연설에서 경제문제의 중요성을 지적하면서「결정적 전기의 달성」「경제사회제도의 강화와 개선」「사회주의원칙의 창조적 적용」이라는 내용의 정책개선윤곽을 역설한것과 맥을 같이하는 것으로 소련체제의「지속과 변화」라는 양면성을 동시에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대외문제에 있어서는 핵 5개국회의 개최를 제의함으로써 핵군축문제는 미·소만의 문제가 아닌 세계적문제로 부각시키려하면서 미·소간 핵실험중지, 중거리핵철거문제 합의가능성을 표명, 단계적인 대미관계 개선의지를 나타내는등 평화적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있다.

또 그간 비현실적이라고 비판되어 온 제22차 당대회시(61년10월) 후르시초프에 의해 채택된 강령을 개정했다. 당시 후르시초프는 1970년대에 가서 소련은 1인당 국민소득년에서 미국을 능가할 것이라고 예언했으나 85년현재 미국의 1인당 국민소득 15,470불에 비해 소련은 7,120불로 절반수준에 못미치는 부진함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당강령의 목적을「사회주의 건설의 실천을 창조적으로 총괄하고 당의 집단적 사상을 표현하여 공산주의 주된 과제와 기본적인 단계를 규정」하는 것에서「소련사회발전의 전망과 공산주의목표를 달성하는 방법과 수단및 정책과제를 보다 명확히 구체적으로 규정」한다면서 구강령에서 당의 과제와 목표를 제시했던「금후 10년간 1인당 생산댠에서 미국을 능가하고 다음 10년간에 공산주의사회를 건설하고 20년간 공업생산은 6배로 한다」는 규정을 바꿔 궁극적인 목표를 공산주의사회건설에 두면서도「사회주의와 공산주의간에 명확한 경계는 없다」면서「2000년까지 생산력을 배증하고 노동생산성을 130~150% 높인다」고 규정하므로서 현실주의를 보다 강조하고 있다. 고르바쵸프 서기장은 이와같이 환상적인 공산주의 목표를 전면 수정하고, 환상보다는 현실을 중시하는 새로운 21세기의 이념적 청사진을 제시했다.

한편 이번 당대회에서는 경제개혁을통해 경제성장을 가속화하려는 당지도부의 의지가 표출되고있다.

리즈코프수상은 86~90년간에 걸친 제12차 5개년계획과 장기경제계획을 밝히는 경제정책노선을 천명하면서『소련경제를 활성화시키고 2천년대까지 국민소득및 공업생산고 2배증가, 노동생산성 2.3~2.5배 증가라는 당의 목표를 실현시키기 위해 기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주장했다.

그는 개혁의 방향으로 생산자동화, 기업의 자율권확대, 인센티브시스템도입등 경제실험을 87년부터 전공업분야및 운수분야에 확대실시하고, 중앙계획기능을 대폭적으로 지방에 이양하는 한편, 정부가격통제를 완화하고 초과생산물의 시장판매를 허용한다는 것이다. 이같은 소련의 경제전략은 계획경제의 기본원칙유지를 강조하고 있기는 하나 전통적인 중앙계획경제운영방식에 대한 수정을 도모하고 있고 가격체계의 시장기능을 자율적으로 조정하고 잉여생산물을 자유롭게처분토록 허용하므로써 노동자 농민들의 생산의욕을 고취시키는등 자본주의요소의 부분적 도입을 꾀하고 있다.

또한 임금의 균등화에 의한 불합리한 평등을 배제함으로써「동일노동, 동일임금」이라는 공산주의 원칙 일부 마저도 수정하려는 것인바 이는 경제침체가 초강대국으로서의 소련지위유지에 취약요소가 되고있음을 감안할 때 과감한 개혁을 통해 경제적도약의 전기를 마련, 고르바쵸프 신지도체제에 대한 국민적 욕구를 충족시켜나가려는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고르바쵸프서기장은 개혁의지 실천을 위한 첫단계작업으로 그의 측근경제전문가를 당고위직에기용하는등 권력기반구축작업을 착실히 진행시켜 왔는바 이번 당대회를 계기로 이를 더욱 공고히 했다.

시론

고르바쵸프는 당정무국원으로 당국제부장을 맡아온 보리스 포노마료프(81)와 동 최고회의 간부회의 제1부의장 바실리 쿠즈에쵸프(85) 등 2명의 원로와 서기국에서 경공업담당 카피토노프(71)등 70세이상의 고령자들을 퇴진시킨 반면, 작년 7월 당서기국원으로 선출된 레오자이코프(63)가 당정치국후보위원을 거치지않고 정위원으로 승진, 정치국원겸 서기국원을 겸임함에 따라 고르바쵸프, 리가쵸프에 이어 제3인자적 위치를 차지했다.

그러고 고르바쵸프서기장은 종래 8명이던 서기국인원을 11명으로 대폭 증강하여 정책집행기능을 강화시키는 한편 사상최초로 여성1명을 당서기국에 임명한 점과 도브리닌 주미대사의 당서기승진 다브라시코프 주일대사의 중앙위원직탈락등이 두드러진 특징중의 하나라하겠다.

이번 당대회에서 가장 주목된 것은 고르바쵸프 서기장의 체제구축작업이 였는바, 새로 선출된 중앙위원 3백7명중 1백38명(45%)을 신인으로 교체하였다.

이는 브레즈네프 집권때인 제25차 당대회시(76.2%)의 당 중앙위원 30명 교체, 제26차 당 대회시(81.2%) 의 당중앙위원 교체율 28%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이다. 이와같은 인사개편으로 고르바쵸프정권은장기집권체제를갖추게된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고르바쵸프 서기장은 브레즈네프이후 고령에다가병약했던안드로포프와 체르넨코등의 단기집권으로 연거푸 국장을치루어야 했던 소련인들의 정권에대한실망감을 생각하여 소련사회에 새바람을 불어넣는 젊고 참신한 인사의 단행이 무엇보다도 요구되었을 것이며 당핵심부서를 보다 젊은세대로 교체함으로서 50대인 그의장기집권기반이 더욱굳어졌다고보아야 할것이다. 따라서금후 고르바쵸프 정권은 확고한 권력기반을 바탕으로 경제활성화를 위한 정책추진에 진력하면서「소련형 實用主義」노선의 점진적인 개혁정책을 시도할 것이다.

정권에 안정기반구축은 경제문제의 우선적인해결을전제하는 상호보완적인 것일에는 재론의 여지가 없기 때문이다.

경제통이며 전임자인 안드로포프와 체르넨코 정권하에서 경제정책입안 최고직책인 정치국과 서기국원으로 3—4년간 지내온 경력으로보나 그의 개혁정책구상등을 감안할때 그의 리더쉽이 경제개선책에 절대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그러나 고르바쵸프 정권이 극복해야 할 문제점 또한 많이 남아 있다.

알리예프당 정치국원 겸 제1부수상은 지난 2월27일 기자회견에서 소련경제에서의 지방경제와 관련,『그와같은 통계는 없으나 블랙마켓 (지하경제) 이 현실적으로 존재하고 있으며 부족한 물건을 구입한 자가 타인에게 고가로 파는 등 법을 어기고 있다』고 실토했다.

소련의 경제구조면에서 볼 때 계획경제에 의한 재화와 서비스 생산과 배분이라고 하는 통상적인 부분과 사회주의 이외의 영역에 있는재화와 서비스생산과 배분이라고 하는 제2경제로서의 사적 부분이 존재하는데 이 제2경제는 사회주의적 경제부분이 어느정도 지탱하고 있다고 할 만큼 그 비중이 높았다고 한다. 이와관련, 자연히 부정부패 문제가 심각한 문제로 제기되어 왔고 汚職·착복 등에 대해서는 총살에 처하고 있으나 근본적으로 근절되지 않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계속해서 알리예프 제1부수상은 당 특권적인 지위를 누리지않고 있으며 대기업의 공장장정도의 급여를 받고 있다고 언급함으로써 정치국원의 특혜남용을 경계하고있다.

그리고 오늘날 소련사회에서 강력히 시행하고 있는 금주운동은 상당히 긍정적이나 주류판매가 종전의 절반수준으로 감소, 엄청난 재정적 손실을보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다. 더구나 소련경제가 타성에의한 경영관리상 극도의 제한과 비대한 군사비로 여타부분에의 희생이결과적으로 걷잡을수 없는 경제의 뒤안길을 헤매왔다는 점에서농공생산의 중진과 군사비의조화가 이루어져야 할것이다. 한편 대외적으로는 핵 5개국수뇌회담개최, 고르바쵸프의 3단계 핵군축안등을 전면에 내세워 대서방선전공세를 더욱 강화해 나갈것으로 전망된다.

급진적인 개혁만이 難題들 극복

이같은 소련의 경제전략은 전통적 운영방식에 대한 수정을 도모하고 있고 잉여 생산물은 자유롭게 처분토록 허용함으로써 노동자·농민들의····

朔風

우리는 우리운명에 주체적인가

요즘 미국에서는 필리핀 사태이후 한국의 정치적 장래에 대한 논의가 무성한 모양이다. 미국의 유력지들이 전하는 바에 의하여 우리는 그 논의의 초점이「미국은 필리핀에 적용했던 원칙과 방법을 한국에도 그대로 적용할 것인가」에 대해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미국은 전통적으로「미국의 이익을 지지한다면 그가 비록 독재자일지라도 지원한다」는 외교노선을 취해 왔다. 이에 대한 비판적인 여론이 국제사회에서 비등해지자, 최근 미국은 그들의 외교노선의 기본을 인권에 둔다고 표방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남미의 몇몇 국가에서는 군부독재가 종식되면서 민간정부가 들어섰고, 20년이라는 기간 동안 독재의 아성을 구축하기에 급급했던 마르코스가 축출되는 상황이 벌어졌던것이다.

그런 인권외교가 한국에도 적용될 것인가, 적용된다면 어떤모델이 채택될것인가 등등에대한 시비가 비등해지자 미국무성은 대변인 버나드 칼브를 통해「필리핀과 한국은 다른나라」라는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하는 소동까지 벌이게된것이다.

이같이 미국이 마치 한국운명의 주체인양 떠들어대는 것은 불쾌하다. 물론 이해관계가 걸려있는 국가의 장래에대해 관심을갖는 일은 당연하다고도 할수있겠지만 미국의 관심은그선을 넘고있다. 그들의 말이나 행동에서는 마치한국이 그들에 예속된듯한 감을 느끼게되니까 말이다.

그러나 미국의 그러한 태도가 미국의주제넘음에만 기인하는것은 아닌것임을 이땅의 정권이 보여준 바 주체적인 태도에서 찾을 수있다.

현정권은 필리핀 사태가 일어나자 이에지나치게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 사태가 진행되는 동안 텔레비전매체의 사실보도를 일부규제한 것이라든지, 그후 미국에서 의논란에 대해『일부에서는 필리핀사태와관련한 악성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있다』느니 한편에서 우리는 필리핀사태에서 교훈을 배우려는 자세가 결여되어 있는것 같다. 그러다가 미국무성의 논평이 나오자 그것이 금과옥조라도 되는 양 인용하기에 바쁜 모습도 보았다.

우리나라가 인권이 존중되고, 정의가 관철되며, 민주화가 이룩된 상황이라면 필리핀 사태야 어떻게 진행되든 상관하지 않아도될 것이고, 그렇지 못한 상태라면 과감하게 개혁하는 자세를 취하는 것이 한 국가의 정권 담당자로서 취해야 할 태도임에도, 애써 남의 말에서 정당성을 찾으려는 태도에서 우리는 주체성을 상실한 우리나라의 안타까운 모습을 발견하게 되며, 미국의 태도에도 벙어리처럼 냉가슴만 앓아야 하는 우리의 처지를 발견하게 된다.

그렇다고 우리의 처지를 한탄하고 있을수는 없다. 우리는 우리 운명의 주체이기에, 언제까지나 우리의 운명을 남에게 저당잡힌 채 살아갈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운명을 저당잡혀온 우리의 현대사를 올바르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 미국은 우리에게 어떤 존재이며, 일본은 또한 우리에게 어떤 존재인가를 냉철히 분석하고 이들에 대한 현재 우리의 태도가 과연 주체적인 인간으로서, 주체적인 민족으로서 옳바른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인가를 우리의 현대사는 너무도 뼈아프게 알려주고 있기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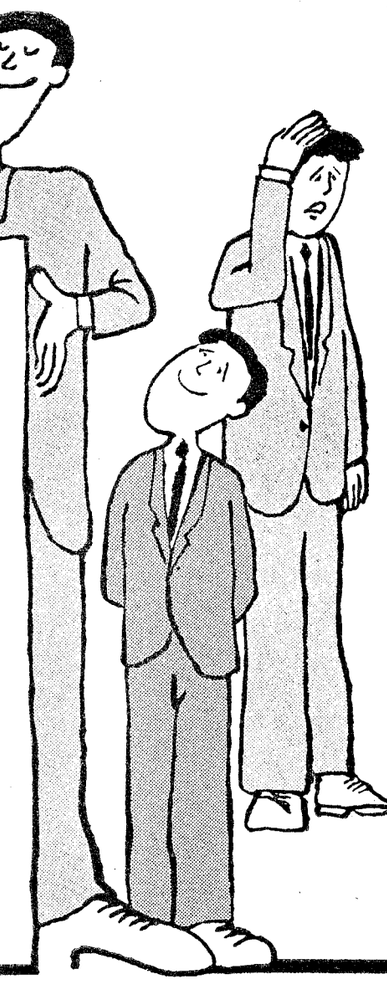
<俊>

(고) (황) (만) (평)

<기사 튀겨 드립니다>

울로 느끼는 마음의 여유
Feel more rich with wool

"좋은 옷도 색상에 맞게 입어야 멋과 품위가 살아납니다."



옷을 잘 입기 위해서는 디자인 못지않게 신경써야 할 것이 색상입니다.
색상은 자신의 분위기나 이미지를 좌우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얼굴색과 머리색 또는 자신의 취향에 맞는 색상 선택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양복과 셔츠, 넥타이 등의 색상이 서로 조화를 이룰때 더욱 멋과 품위가 살아납니다.
골덴텍스가 색상을 보다 멋지게 다룰 수 있는 자신감을 드리기 위해 색상의 선택 요령을 소개합니다.

골덴텍스가 드리는 7가지 가이드

1. 청색양복일때 와이셔츠는 황갈색을 제외하면 어떤 색상도 잘 어울립니다.
- 청색 양복은 신사복의 주종을 이루는 가장 무난한 색상으로서 특히 머리가 검정색이나 갈색인 사람에겐 조화가 잘 됩니다.
- 와이셔츠는 황갈색을 제외한 모든 색상이 청색양복과 잘 맞으며, 넥타이는 빨간색, 밤색, 청색, 연회색, 아이보리색, 금색 등이 좋습니다. 또한 무늬있는 검정이나 초록색도 비교적 잘 조화됩니다.

2. 회색 양복일때 넥타이는 회색을 제외하면 어떤 색상도 좋습니다.
- 회색양복은 검은 머리의 남성이면 누구에게도 잘 어울리며 얼굴색이 흰편인 남성에겐 중간내지 짙은 회색이 좋습니다.
- 와이셔츠는 흰색, 청색, 연한황색, 연한 올리브색, 핑크색이 잘 어울리며 단, 회색은 양복색상보다 연하고 밝아야만 대비효과를 낼 수 있읍니다. 넥타이는 양복과 같은 색상의 무지 회색 넥타이만 제외하면 어떤 색상이나 무늬도 잘 조화됩니다.

3. 갈색양복일때 와이셔츠는 연회색이나 청색이면 무난합니다.
- 얼굴색이 검은편이거나 머리가 갈색인 남성에겐 어떤 계통의 갈색양복도 무난하며, 얼굴색이 흰편인 남성에겐 차가운 감이 도는 황갈색이 잘 어울립니다.
- 와이셔츠는 연회색이나 청색은 갈색양복에, 연한 핑크색, 청색, 녹색, 베이지색은 황갈색 양복에 잘 받습니다. 넥타이는 초록색, 회색, 올리브색, 금색 등이 갈색양복에, 검정과 흰색이 배합된 것은 황갈색 양복에 잘 어울립니다.

4. 짙은 베이지색 양복일때 넥타이는 짙은 남색이 제격입니다.
- 짙은 베이지색 양복은 따뜻한 감이나고 채도와 명도가 중간정도이기 때문에 어떤 남성도 무난히 입을 수 있읍니다.
- 와이셔츠는 연한 색조의 회색, 핑크색, 청색 혹은 베이지색을 받쳐 입으면 조화가 잘 되며, 넥타이는 짙은 남색이 제격이며 은회색과 암회색도 잘 어울립니다.

5. 연두색 양복일때 넥타이는 연록색 계통이 좋습니다.
- 연두색 양복은 얼굴색이 흰편인 남성에게 가장 잘 어울리며, 머리색이 은빛이거나 백발인 남성에게도 아주 잘 어울립니다.
- 와이셔츠는 선명한 황색, 연한 녹색, 엷은 청색, 회청색, 흰색 및 상아색이 좋으며, 넥타이는 연록색 계통이 잘 어울립니다.

6. 카키색 양복일때 청색 와이셔츠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 카키색 양복은 색조의 범위가 넓어 대부분의 사람에게 선택의 무리가 없으나 얼굴색이 흰편인 남성에겐 적합하지 못합니다.
- 와이셔츠는 흰색, 황색, 녹색, 핑크색, 엷은 자주색, 적갈색, 회색, 황갈색, 올리브색 등이 잘 어울리며 청색은 잘 조화되지 않으나 청색과 카키색이 섞인 와이셔츠면 무난합니다. 넥타이는 황색, 금색, 녹색, 갈색계통이 좋습니다.

7. 녹색양복일때 넥타이는 붉은 벽돌색 계통이 잘 어울립니다.
- 녹색 양복은 색상이 강하므로 얼굴색이 흰편인 남성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 와이셔츠는 황색계통, 베이지색, 아이보리색, 흰색 등이 알맞으며, 흰색과 핑크 혹은 흰색과 진홍색의 줄무늬는 더욱 좋습니다. 넥타이는 녹색, 선명한 청색, 빨간색, 어두운 금색이나 붉은 벽돌색 계통이 좋습니다.

세계 정상의 제일모직이 탄생시킨 최고급 복지—
골덴텍스 VIP2000
외국산복지의 수입개방에 자신있게 맞설 수 있는 우리복지의 새로운 명예입니다.

"좋은 옷은 좋은 복지가 만듭니다."
색상, 디자인, 소재에서 항상 새로운 감각을 창조하는 골덴텍스.

최고의 품질
골덴텍스
第一毛織